

◇ 인공심장판막에 대한 재치환술

김재현, 윤경찬, 최세영, 박창권, 이광숙, 유영선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인공판막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인공판막의 기능부전이나 합병증으로 재치환술의 빈도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. 본 연구에서는 인공심장판막에 대한 재치환술시 위험인자를 분석하여 향후 수술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85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계명의대 흉부외과에서 인공심장판막질환에 대한 재치환술을 받은 124예에 대하여 술전 임상적 소견 및 수술성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. 심장판막재치환술의 원인으로 조직판막자체의 구조적 실패가 96예[77.4%]로 가장 많았고 판막혈전증 16예[12.9%], 심내막염 7예[5.6%], 판막주위누출 5예[4.1%]가 있었다.

결과 : 심장판막재치환술의 병원사망율은 8.9%였고 사망원인으로는 저심박출증이 70.6%로 가장 많았다. 재치환술후 병원사망의 술전 위험인자들로는 LV systolic dimension, NYHA functional class, IV,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등이었으며[$p < 0.05$], 연령, 성별, 흉부엑스선상 심흉곽의 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다.

결론 : 술전 임상적 소견중 LV systolic dimension, NYHA functional class,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등이 재치환술후의 예후를 추측할 수 있는 술전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그리하여 심장판막재치환술은 심장 및 신기능이 악화되기 이전에 가능한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.

책임저자:김재현(계명의대 흉부외과) 발표자:김재현(계명의대 흉부외과)